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하편>>

## ◆차례◆

### 5. 바른 언어생활

- (2) 우리말의 문장 표현-----1쪽 (60문제)
- (3)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20쪽 (17문제)

### 6. 한국 문학의 흐름

- (1) 옛 노래 세 편 감상하기 -----28쪽 (69문제)
- (2) 심청전 -----54쪽 (44문제)
- (3)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81쪽 (26문제)
- (4) 삼포 가는 길 -----94쪽 (33문제)

### 7. 해결해 봅시다

- (1) 로봇 시대, 인간의 일 -----118쪽 (19문제)
- (2)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127쪽 (2문제)

### 8. 문학의 가치

- (1)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131쪽 (29문제)

### 9.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145쪽 (61문제)
- (2)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162쪽 (21문제)

▶정답-----168쪽

▶해설-----171쪽

(버전: 2020.08.04.)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1 높임 표현**

• **높임법**: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

<b>상대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li> <li>•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며, 격식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해오체, 해체)로 나뉨.</li> </ul>
<b>주제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li> <li>•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잡수시다, 주무시다 등)를 사용하기도 함.</li> <li>•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기도 함.</li> </ul>
<b>객체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li> <li>•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모시다, 뵈다, 뵈다, 드리다, 여쭙다, 여쭙다 등)를 통해 실현됨.</li> <li>•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2 시간 표현**

• **시간 표현**: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요소로, 국어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음.

•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뉨.

종류	개념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b>과거 시제</b>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았- / -었-, -았었- / -었었-, -더-	• 동사: -(으)ㄴ, - 던 • 형용사: -던	어제, 아까 등
<b>현재 시제</b>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 동사: -는- / -ㄴ- - • 형용사: 없음.	• 동사: -는 • 형용사: -(으)ㄴ	오늘, 지금 등
<b>미래 시제</b>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겠-, -(으)리-	-(으)ㄹ	내일, 곧 등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뉨.

<b>진행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li> <li>• ‘-고 있다’, ‘-어(아)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li> </ul>
<b>완료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의 완료를 나타냄.</li> <li>• ‘-어(아) 버리다’, ‘-어(아) 있다’, ‘-어(아) 놓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li> </ul>

**3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

<b>- 는 - / -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제를 표현함.</li> <li>•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음.</li> <li>•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li> </ul>
<b>-았- / -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시제를 표현함.</li> <li>•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li> <li>•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음.</li> </ul>
<b>- 겠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시제를 표현함.</li> <li>•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음.</li> <li>•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음.</li> </ul>

**4 피동 표현**

-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피동 표현의 형성 방법**: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들거나, ‘-되다’, ‘-어지다’, ‘-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냄.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표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함.</li> <li>•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사용함.</li> <li>•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함.</li> <li>•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li> </ul>
--

- **피동 표현의 오용**: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표현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함.

<b>이중 피동 표현</b>	피동사나 ‘-어지다’, ‘-게 되다’ 등의 표현을 두 개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표현 예) 나뉘어지다(나누- + -이- + -어지다)
<b>불필요한 피동 표현</b>	능동 표현을 사용해야 국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번역 투의 영향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예)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5 인용 표현**

-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으로, 전달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뉨.

<b>직접 인용</b>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라고’를 사용함.
<b>간접 인용</b>	조사 ‘고’를 사용함.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서술한 것을 고르면?**

- ①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격식 있는 문체가 된다.
- ②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③ ‘철수가 만든 장난감을 강아지가 부수어 버렸다.’에서 ‘만든’의 ‘-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버렸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④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 ⑤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 표현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2. 잘못된 표현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 ②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③ 내가 상을 탔다니 믿겨지지 않아.
- ④ 그 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어요.
- ⑤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바탕으로 능동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탐구한 것이다. 올바르게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김기자 :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여섯 시쯤 ○○구 ○○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이 중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복과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교복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 가량 올랐으며, 운동화는 9%, 가방은 6.5%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 ㉠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② ㉡를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로 바꾸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③ ㉢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 ④ ㉢는 내용의 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 ⑤ ㉢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대전대신등학교 (대전)**

**4. 다음 중 동작상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상 :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 ② 진행상 : 지금쯤 고구마가 잘 익어 있겠다
- ③ 진행상 : 기차가 그때 막 들어오고 있었다
- ④ 완료상 : 영우가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완료상 : 승주는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나 조사가 아닌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주무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여쭙다)
- ㉢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체언(예 사장님)
- ㉣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체언(예 덕)

- ① ㉠, ㉡이 모두 쓰인 문장 : 아버님께서 아직 음식을 드신다.
- ②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어머니를 설득하여 치아를 교정해 드렸다.
- ③ ㉡, ㉢이 모두 쓰인 문장 : 동생은 사무실로 가서 그분을 직접 찾아뵈었다.
- ④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언니는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쭙어 보았다.
- ⑤ ㉢, ㉣이 모두 쓰인 문장 : 나는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기억한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우리는 내일 프랑스 여행을 간다.
- ㉡ 그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다.
- ㉢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 ㉣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번 농사는 다 지었다.
- ㉤ 어제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

- ① ㉠ :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ㄴ-'이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 ② ㉡ : '-었었-'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③ ㉢ : '-었-'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겠-'이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 : '-었-'은 발화시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 '-더-'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아버지 : 지수가 책상 정리를 ㉠하고 있구나.  
 지수 : 네, 바자회에 기부할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아버지 : 잘 했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구입한 책은 어디 있지?  
 지수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아버지 : 그렇구나.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지수 : 네, 조금 후에 저랑 같이 바자회에 ㉤갈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ㄴ-'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대전대신고등학교 (대전)**

8.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를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옷이 잘 입어지실(☞ 이 옷을 잘 입으실) 거예요
- ② 텔레비전에 비치느(☞ 비춰지느)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 ③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예상됩니다.)
- ④ 이것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작된) 제품입니다
- ⑤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서원고등학교 (경기)**

9.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사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컨대, ‘안다’에 접미사 ‘-기-’가 결합한 ‘안기다’는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 캠핑 중에 모기에게 다리를 물렸다.

㉡ : 엄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 ① ㉠ : 야외에서 직접 경관을 보니 그림의 구도가 쉽게 잡혔다.  
㉡ : 병이 낫자마자 아이에게 붓을 잡혔다.
- ② ㉠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 : 누나가 동생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③ ㉠ : 책상 위의 원고들이 바람에 날렸다.  
㉡ : 꼬마들이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 ④ ㉠ : 친구가 새 가방을 내게 보였다.  
㉡ : 투병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보였다.
- ⑤ ㉠ : 칭얼대는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혔다.

**서원고등학교 (경기)**

10. <보기>의 ㉠과 ㉡에서 밑줄 친 말의 의미를 비교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

일반적으로 ‘-았-/-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았-/-었-’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뻐다.

㉡ 발목을 다쳤더니 너는 수학여행은 다 갔다.

<조건>

- ‘㉠의 ‘-았-’은 ~을(를) 의미함’의 형식으로 쓸 것.
- ‘㉡의 ‘-았-’은 ~처럼 표현함.’의 형식으로 쓸 것.

**석관고등학교 (서울)**

11. 높임 표현과 상대 높임 체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①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 하십시오체
- ② 아저씨, 강아지가 정말 귀여우세요. - 격식체
- ③ 교장선생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하오체
- ④ 정연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하계체
- ⑤ 네, 고객님. 이 제품 정말 잘 나가세요. - 해체

**석관고등학교 (서울)**

12. 밑줄 친 부분에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 ① 현우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 ② 아버지께서 파전을 맛있게 드신다.
- ③ 예지가 선생님께 수학문제를 여쭙었다.
- ④ 승찬이가 과일을 깎아서 어머니께 드렸다.
- ⑤ 경호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정류장으로 나갔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3. 밑줄 친 부분에서 시제가 다른 하나는?

- 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 ② 민기가 운동장을 달린다.
- ③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 ④ 내 친구가 물을 많이 마신다.
- ⑤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니?

**석관고등학교 (서울)**

14. 다음 시의 ㉠~㉣에 대한 설명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① ㉠과 같은 시제 표현은 부사어 ‘지금, 이제’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② ㉡과 ㉢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 ③ ㉣은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겠니?”와 같은 문장에 쓰인 것처럼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 ④ ㉤은 관형사형 어미 ‘-니’가 사용된 현재 시제이다.
- ⑤ ㉠, ㉢, ㉤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5.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 ① 일부 체언 뒤에 ‘-지다’를 붙여 만들 수도 있다.
- ② 주어가 직접 행동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 ③ ‘운전 중에 끼여들기를 하지 마라.’가 바른 표현이다.
- ④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제목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 ⑤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의 7종의 접사를 붙여 표현한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① 이중 피동의 사용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 ② 교환해 주지 않는 업체 측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다.
- ③ ‘모여지다, 쓰여지다, 믿겨지다’ 등과 같은 표현이다.
- ④ 용언의 어간에 ‘-게 되다’를 붙여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 ⑤ “다음에 들를 장소는 광화문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의도로 사용된 표현이다.

■ 듣기 ·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개인에 따라	집단에 따라
개인의 성격, 직업, 경험과 지식,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세대, 성별, 지역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과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함.

■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이해하기

사과할 때의 말하기	사과의 의도가 명백한 표현을 사용함.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함.
부탁할 때의 말하기	자신의 사정이나 입장을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성실함과 진심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함.

■ 대화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한다.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관용의 격률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찬동의 격률	청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겸양의 격률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라.
동의를 격률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 협력의 원리: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질의 격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라.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라.
태도(방법)의 격률	모호한 표현이나 증의적 표현을 피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라.

- 순서 교대의 원리: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한다.

**계남고등학교 (경기)**

1. 다음 상황에서 화자에게 필요한 언어 예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민규 : 종현아!  
 • 종현 : 응, 민규아.  
 • 민규 : 어젯 태성이한테 갔다 줘.  
 • 종현 : 이걸? 왜?  
 • 민규 : 말하기 귀찮아, 그냥 갔다 줘.  
 • 종현 : 야, 넌 그게 부탁하는 태도냐?

<보기>

ㄱ.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ㄴ.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여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드러낸다.  
 ㄷ. 부탁할 때에는 이쪽의 사정이나 입장을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ㄹ. 청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좀', '잠깐', '혹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계남고등학교 (경기)**

2. 다음 대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대화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정 진사 : 자네가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 박지원 :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기 때문이네.  
 • 정 진사 : 새로운 의견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 왜 그러한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 박지원 : 그냥 알아서 생각해 보게.  
 • 정 진사 : (말문이 막혀서) .... 이전의 생각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인 듯하여 꼭 알고 싶네. 자네의 박학다식(博學多識)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배우고 싶다네.  
 • 박지원 : 내가 좀 훌륭하지.

<보기>

ㄱ. 정 진사는 박지원에게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기 않아서 대화를 지속할 수 없었다. 정 진사는 대화할 때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  
 ㄴ. 박지원이 정 진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화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ㄷ. 정 진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여 대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ㄹ. 박지원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줄이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광문고등학교 (서울)**

3.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 ① 요령의 격률 :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② 찬동의 격률 :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  
 ③ 겸양의 격률 :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④ 동의를 격률 :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⑤ 관용의 격률 :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광문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대화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협력의 원리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가) 선유 : 난 소망구에 사는데, 넌 어디 사니?  
 진우 : 난 대한민국 푸른시 초록구 행복로 00아파트 0동 000호에 살아. 우리 동네에는 공원도 많고 산이 있어서 주말마다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  
 (나) 유미 : 우리 일요일에 영화 볼래?  
 해진 : 글썸..... 나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숙제도 많고, 좀 피곤해서. 그래도 영화는 보고 싶긴 해.....

- (가)                                      (나)
- ① 양의 격률                      태도의 격률  
 ②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③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④ 질의 격률                      태도의 격률  
 ⑤ 태도의 격률                      양의 격률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실에서

윤서 : 강산아, 뭐 해?

강산 : 어, 수학 문풀 좀 보느라. 왜?

윤서 : 왜긴, 너 생일이잖아. 생축!

강산 : 하하. 고마워.

윤서 : 내가 생선도 준비했음. 자, 여기.

강산 : 헉! 문상!

윤서 : 네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며.

강산 : 역시 내 절친.

윤서 : 이따 애들이랑 생파 어때?

강산 : 좋지.

(나) 교무실에서

강산 : 선생님, 수행 평가 과제 걸어 왔어요.

교사 : 그래, 고맙다.

강산 : 네, 참, 오늘 제 생일이예요.

교사 : 오늘이 생일이니? 축하한다. 친구들한테 축하 많이 받았니?

강산 : 그럼요. 윤서가 생선도 줬어요.

교사 : 윤서가 생선을 줬어? 강산이가 생선을 좋아하나 보구나! 선생님도 갈치 좋아하는데, 너는 무슨 생선을 제일 좋아하니?

강산 : 갈치요? 갑자기 웬 갈치요?

교사 : 생선을 받았다면?

강산 : 아 그건, 생일 선물 줄여서 말한 건데요.

교사 : 그래? 너희는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고 하니? 선생님은 먹는 생선인 줄 알았구나!

강산 : 아, 죄송합니다. 생일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교감 선생님 : (강산이가 교무실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요즘 애들은 웬만한 말은 다 줄여 쓰니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교사 : 네. 그러네요.

(다) (나정이의 가족은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출신이며 야구부 투수인 칠봉이는 나정이 있는 신촌 하숙집에 자주 놀러 온다.)

나정 : (집 안에서 나오는 칠봉을 보며) 와, 갈라꼬?

칠봉 : 응.

나정 : 점심 먹고 가지.

칠봉 : 그럴까?

나정 : 라면 물 올리라. 퍼뜩. (집 안으로 들어간다.)

칠봉 : 어? 내…… 내가? (뒤따라 들어간다.)

부엌에서 나정과 칠봉이 마주 앉아 라면을 먹는다.

나정 : (라면 먹으며) 음, 니 제법 꿀잇다아.

칠봉 : 잘 꿀였다는 거지?

나정 : 응. 내 근래 먹어 본 라면 중에 제일 잘 꿀였다.

칠봉 : 그래? 내가 라면만 십 년째 꿀였거든.

나정 : (라면 먹으며) 맞나.

칠봉 : 응. 훈련할 때는 선배들한테, 합숙 가서는 후배들한테. 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꿀였다.

나정 : 맞나.

칠봉 : (웃다가) 근데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종일 일만 하는 거 같던데?

나정 : (라면 먹으며) 맞나.

칠봉 : ㅎㅎ. 야 뭘 자꾸 맞나야, 말끝마다.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야, 뭐 맨날 맞나야.

나정 : (가만히 보며) 맞나.

칠봉 : 하하. (웃음)

(라)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의 구별 없이 모두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언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어떤 범주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선호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은 평서문을 더 선호한다. 이것은 남성이 단정이나 선언과 같이 자기주장이 강한 대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주장할 때에도 직접적인 단정보다는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 청자에 대한 요구를 나타낼 때도 남성은 직접적인 명령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들은 청유문이나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5. (가)에 나타난 ‘강산’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감탄사를 사용한다.
  - ㄴ. 명사형으로 끝맺은 문장을 사용한다.
  - ㄷ. 사전에 나와 있는 표준어만 사용한다.
  - ㄹ. 사회적 위치에 따른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 ㅁ. 압축적인 줄임말, 신조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

- ① 가, 라                      ② 나, 다
- ③ 가, 나, 모                ④ 나, 라, 모
- ⑤ 가, 다, 라, 모

**덕이고등학교 (경기)**

**6.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대화에서는 청소년층의 사회 방언이 드러난다.
- ② (나)의 대화에서는 서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 학생 모두 격식체만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다)에서 철봉이와 나정은 서로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라)에서 남성과 여성 언어의 범주나 형식에서 선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라)를 통해 개인 및 집단 간의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언어생활 태도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언이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의미한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등이 그 예이다.

- (1) 지역 방언이 가지는 의의를 한 가지만 쓰시오.
- (2) (나)를 참고하여 사회 방언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할 때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는 다음처럼 다섯 가지의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
-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협력의 원리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협력의 원리는 다음처럼 네 가지의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나) 부탁할 때에는 이쪽의 사정이나 입장을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리고 성실함과 진심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화자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요구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이 된다. 청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좀’, ‘잠깐’, ‘혹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있으세요?’ 등의 물음으로 청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축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생일을 축하할 때 친구에게는 ‘축하한다.’와 같이 쓰고, 손위 어른에게는 ‘생신을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등처럼 쓸 수 있다. 이때 ‘건강하십시오.’처럼 잘못된 명령형 문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과할 때는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한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처럼 사과의 의도가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거나 문제가 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여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드러내면 진심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다.

위로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 특히 문병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사말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회복을 바라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처음 환자를

대할 때는 '좀 어떠십니까?'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올 때는 '조리 잘 하십시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인사한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8. (가)를 참고하여 다음의 대화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우 : ㉠친구야, 창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진우 : 왜?  
 선유 : ㉡말하기 귀찮아. 그냥 열어!  
 진우 : 그래. 알았어.  
 선유 : ㉢그리고 이것 공책 좀 태성이한테 갖다 줘.  
 진우 : 싫어. 내가 갖다 줘.  
 선유 : 미안, 내가 다른 일이 좀 있어서 부탁할게.  
 진우 : 알았어, 그런데 왜 갖다 주는 거야?  
 선유 : 응, 수행평가에 필요한 내용이라 빌려 달래.  
 진우 : ㉣근데 공책에 글씨가 이게 뭐냐? 글씨가 엉망이네!  
 선유 : 그래? 앞으론 잘 써야겠군. 너는 글씨 잘 쓰더라.  
 진우 : ㉤당연하지. 난 능력이 뛰어나서 못하는 게 없거든!

- ① ㉠ :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가 드러난다.
- ② ㉡ :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 : 요청의 격률에 위배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④ ㉣ : 찬동의 격률에 위배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⑤ ㉤ : 겸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9. (나)를 참고한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생에게) 누나가 지금 필요하니까 빨리 노트북 가져와.
- ② (입원한 친구에게) 좀 어때? 쉽게 낫기 어려울 텐데 정말 걱정이다.
- ③ (칠순 잔치에서)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십시오.
- ④ (시간을 모를 때) 시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 ⑤ (친구 볼펜을 망가뜨렸을 때) 정말 미안해, 그런데 네 볼펜이 너무 약한 거 같아, 힘을 별로 주지도 않았는데 망가져 버리네.

**덕이고등학교 (경기)**

10. 다음을 고려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서 교대의 원리는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서로의 역할이 순환된다는 것을 말한다.

- ① 언변이 뛰어난 연장자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
- ② 원활한 대화를 위해 혼자 말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의 순서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가로채지 않아야 한다.
- ④ 대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한다.
- 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대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실에서  
 윤서 : 강산아. 뭐해?  
 강산 : ㉠어, 수학 숙제하는 중. 왜?  
 윤서 : ㉡왜긴. 너 생일이잖아. 생축!  
 강산 : 하하. 고마워.  
 윤서 : 내가 선물도 준비했지. 자, 여기.  
 강산 : ㉢헉! 라이언 필통!  
 윤서 : 너 라이언 좋아하잖아.  
 강산 : ㉣역시 내 절친\*. 필통 정말 커엽다\*.  
 윤서 : ㉤이따 애들이랑 생파\* 어때?  
 강산 : 좋지.  
  
 \*생축 : '생일 축하'를 줄여 이르는 말.  
 \*절친 : 더한 나이 없이 친한 친구. '절친한 친구'를 줄여 이르는 말.  
 \*커엽다 : 귀여움을 뜻하는 말로.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넣어 만든 말.  
  
 (나) 교무실에서  
 강산 : 선생님, 수행 평가 과제 건어 왔어요.  
 담임 선생님 : 고래. 고맙다.  
 강산 : 네. 참, 오늘 제 생일이예요.  
 담임 선생님 : 오늘이 생일이니? 축하한다. 친구들한테 축하 많이 받았니?  
 강산 : 그럼요. 윤서가 생일 선물도 줬어요.  
 담임 선생님 : 너희 둘은 정말 친하구나. 뭘 받았니?  
 강산 : 라이언 필통이요! 제가 라이언 캐릭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윤서가 준 필통 정말 귀여워요.  
 담임 선생님 : 잘됐구나.  
 강산 : 이따 애들이랑 생일 파티도 하려고요.

##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

### ■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낭만적, 서정적
제재	연모의 정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특징	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 ② 비유와 순 우리말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 작품의 구성

초장	임이 없어 외로운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베어 두려 함.
중장	베어 둔 밤 시간을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 두려 함.
종장	그리운 임이 오시면 베어서 넣어 두었던 밤 시간을 다시 펼치려 함.

### ■ 표현상의 특징

동짓달 기나긴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이 없는 부정적인 시간을 뜻함. 혼자 지내는 시간이라 길게 느껴짐. (↔ 어론 님 오신 날 밤)</li> <li>·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눈에 보이는 사물처럼 구체화하여 ‘베어 내어’라고 표현하였음.</li> <li>· 독특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li> </ul>
--------------	--

### ■ 순 우리말 음성 상징어 사용

서리서리	순 우리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운율을 형성함.
굽이굽이	

## <제망매가>\_월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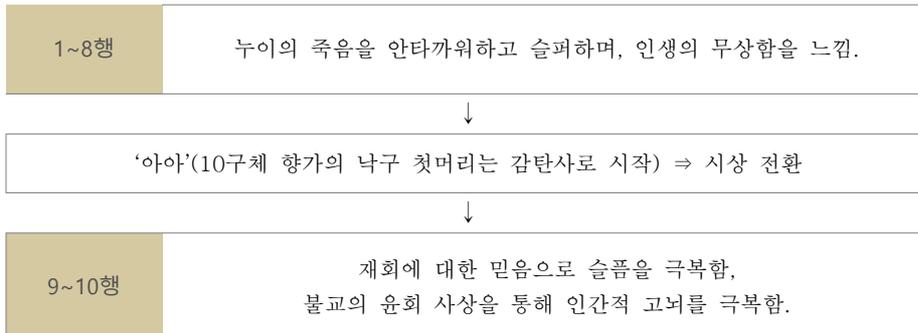
### ■ 핵심 정리

갈래	향가
성격	서정적, 애상적, 추모적
제재	누이의 죽음
주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
특징	① 혈육과의 사별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함. ② 비유, 상징 등과 같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높임. ③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며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함.

### ■ 작품의 구성

1~4행 (기)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5~8행 (서)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
9~10행 (결)	인간적 고뇌(슬픔)의 종교적 승화

### ■ 화자의 태도 변화



### ■ 시어의 의미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을 암시함.
떨어질 잎	죽은 누이를 상징함.
한 가지	한 부모 아래 태어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더 알아보기

### ■ <제망매가>의 배경 설화

《삼국유사》에 의하면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냈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가 없어졌다고 한다. 월명사는 이에 자신의 누이가 서쪽의 서방정토(극락)로 갔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고 한다.

## <이 몸이 죽어 가서>\_성삼문

### ■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의지적, 지사적, 비관적
제재	낙락장송
주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
특징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 작품의 구성

초장	이 몸이 죽은 다음 되려는 것을 질문함.	자문(自問)
중장	낙락장송이 되고자 함.	자답(自答)
종장	독야청청 하고자 함.	

### ■ 시어의 의미

낙락장송	화자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함.
백설	시련, 고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일파를 상징함.

## 더 알아보기

### ■ <이 몸이 죽어 가서>의 창작 배경

이 시조는 성삼문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때 읊은 시조로 알려져 있다.

은 세상이 모두 세조를 섬길지라도, 자신은 봉래산의 키 큰 소나무처럼 우뚝 서서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성삼문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있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제망매가, '월명사'

(나)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 성삼문

(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퍼리라  
- 황진이

(라) 개를 여나몬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라  
미운 님 오며는 꼬리를 뒤흔 치며 치똥락 나리 똥락 반  
겨서 내닫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바둥바둥 무르락  
나오락 강강 짓는 요 도리암개  
선 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  
- 작자 미상

**둔촌고등학교 (서울)**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교적 내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노래이다.
- ③ 10구체의 형식을 지닌 신라시대 노래이다.
- ④ 3단 구성을 보이며 낙구(9행)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타난다.
- ⑤ 선경후정의 방식과 관념적인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2. (가)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 차단말가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메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삼하리오

- ① ㉠와 <보기>의 '꽃'은 화자가 안타깝게 느끼는 대상이다.
- ② ㉠와 달리 <보기>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③ ㉠와 <보기>의 '꽃'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동성을 지니고 있다.
- ④ ㉠와 <보기>의 '꽃'은 화자에게 비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와 <보기>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3. (나)와 (다)에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명령형 문장을 활용하여 청자에게 바라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담담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실현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실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아름다운 우리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였다.
- ③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다.
- ④ 진솔한 감정의 표현을 통해 해학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5.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라)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 평민 사회에서는 언문이 확산되어 다양한 문학작품이 창작되었다. 자수(字數) 등에 제약을 받는 기존 문학에서 탈피하여 서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이나 관료들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여류 작가들의 등장으로 애정 문제, 여성의 기구한 삶 등을 반영한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이 낮은 신분의 평범한 인물들이었기에 작품이 기록과 보존이 어려워 소실된 경우도 많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작가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대다수이다.

- ① 평범한 서민의 애정 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이군!
- ② 중장을 보면 기존의 문학 형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관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군!
- ④ 작가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작가의 신분이 낮았기 때문일 수 있군!
- ⑤ 주제를 고려할 때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군!

**둔촌고등학교 (서울)**

6. <보기>의 (A), (B)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제망매가’의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 그리고 ‘( A )’은/는 같은 부모. ‘( B )’은/는 누이의 갑작스런 요절을 각각 의미한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7. (나)에 나온 ‘백설’과 유사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보기>의 시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보기>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흘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을 벗어나 자연에 살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② 사랑하는 대상과의 예기치 못한 이별로 인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③ 부정적 운명 속에서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여 위축된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④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안타까움을 달래고 있다.
- ⑤ 화자가 겪는 슬픔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生死路隱 생사(生死) 길은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간다는 말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一第隱枝良出古 한 가지에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는 곳 모르온저.  
 阿也彌陁刹良逢乎吾 아아, 미타찰(彌陁刹)에서 만날 나  
 道修良待是古如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제망매가>, 월명사  
 미타찰(彌陁刹) : 아미타불(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이 있는 극락 세계

(나)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 성삼문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9. <보기>와 같은 학습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작가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  
- 이 시의 작가는 신라 시대 승려였던 월명사이다.
2. 배경 설화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제망매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누이를 위해 재(齋)를 올릴 때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제사를 지내니 홀연 광풍이 일어 지전이 서쪽으로 향해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3.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祭(제사), 亡(죽다), 妹(누이), 歌(노래)

- ① 작가와 관련한 정보를 고려할 때, 작가는 인간의 유한함에서 오는 허무함을 종교적 귀의를 통해 승화시키려 한 것 같아.
- ② 배경 설화를 고려할 때, '미타찰'은 지전이 날아간 서쪽에 있는 세계로 죽은 누이가 갔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배경 설화를 고려할 때, '이른 바람'은 제사를 지내던 중 지전을 날려버린 광풍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 ④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 ⑤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가는 곳'은 죽은 누이가 가는 저승으로, 이승에 있는 화자가 현재는 갈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10. (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 -

- ① ㉠은 ㉡과 달리 현실과 이상향 사이의 단절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과 달리 중의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과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어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 ④ ㉠과 ㉡은 모두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일체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선주고등학교 (경북)**

1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냈더니 홀연히 바람이 불어 종이돈이 서쪽(서방극락세계의 방향)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 ① 월명사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이 노래를 창작했을 것이다.
- ② '이른 바람'을 통해 누이가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떨어지다'를 생명이 다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한 가지'는 월명사와 누이의 공통점을 의미하므로 둘이 종교적으로 같은 신념을 갖고 있었음을 상징한다.
- ⑤ '미타찰'은 <보기>에서 종이돈이 서쪽으로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월명사가 누이와 재회하기를 바라는 공간이다.

**선주고등학교 (경북)**

12. <보기2>는 <보기1>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보기2>에서 적절한 의견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수양 대군이 계유정난(1453년)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이후 그는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빼앗았다. 이때 성삼문은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모의 사실이 밝혀져 성삼문은 수양 대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였고, 계획은 수포가 되었다. 결국 성삼문은 불의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보기2>

ㄱ. '백설'은 수양 대군과 그 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ㄴ. '독야청청'은 수양대군과 그 세력에 저항하는 단호한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ㄷ. 이상화된 자연물을 활용하여 단종을 향한 충성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자문자답(自問自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13. (나)와 <보기 2>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보기 1>을 참고하여 (나)와 <보기 2>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수양 대군(훗날 세조)이 계유정난(1453년)을 일으켜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후 그는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빼앗았다. 이때 성삼문은 박팽년, 유응부, 이개 등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모의 사실이 밝혀져 성삼문은 수양 대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였고, 계획은 수포가 되었다. 결국 성삼문은 불의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그는 조선 시대 대표적인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보기 2>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주글진 듯 채미(採薇)도 흥논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님 따헤 낫드니.  
- 성삼문

[현대어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 먹어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낫는가?

- ① 화자는 (나)에서 죽어서도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2>의 '푸새엿'도 먹지 않겠군.  
 ② (나)에서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지라도 '독야청청(獨也靑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보기 2>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군.  
 ③ <보기 2>의 '수양산(首陽山)'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산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나)의 '백설'과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는군.  
 ④ 화자는 (나)의 '제일봉', <보기 2>의 '이제(夷齊)'와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군.  
 ⑤ (나)에서는 시어 '독야청청(獨也靑靑)'을 통해, <보기 2>에서는 '주려 주글진 듯 채미(採薇)도 흥논것가.'를 통해 단종에 대한 화자의 충정을 드러내는군.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 <심청전>\_작자 미상

### ■ 핵심 정리

갈래	판소리계 소설, 고전 소설
성격	교훈적, 비현실적, 우연적
제재	효녀 심청
주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특징	①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 ② ‘수궁’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옥황상제 등과 같은 초월적 존재들이 등장하여 환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 작품의 구성

발단	심 봉사는 아내가 죽은 뒤 딸 심청을 동냥짓을 먹이며 기르고, 심청은 자라서 심 봉사를 극진히 봉양함.
전개	심 봉사는 개안을 할 욕심에 공양미 삼백 석 시주를 약속하고, 심청은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공양미를 마련함.
위기	제물이 된 심청은 인당수에 뛰어든 후 용왕에게 구출되어 수궁에서 지내다 다시 인간계로 환생함
절정 결말	환생하여 황후가 된 심청이가 심 봉사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온 심 봉사는 심청이와 상봉하여 눈을 뜸.

### ■ 등장인물의 특성

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지극함.</li> <li>· 운명에 순응하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함.</li> <li>·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앎.</li> </ul>
심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물로 팔려가는 딸을 속수무책으로 보낼 정도로 무능력함.</li> <li>· 정이 많음.</li> <li>· 딸을 무척 아끼고 사랑함.</li> </ul>
선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청 부녀를 딱하게 여기며, 배려심이 있음.</li> <li>· 인정이 많고, 홀로 남겨질 심 봉사를 위해 살림을 꾸며줌.</li> <li>· 심 봉사를 위한 쌀과 돈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일 처리가 확실함.</li> </ul>
장 승상 택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청을 무척 아낌.</li> <li>· 물질보다 인간의 정을 중시함.</li> <li>· 효성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함.</li> </ul>

6-(2) 심청전

■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p.265 심 봉사의 말, "참말이냐 ~ 두고 보오?"



-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 구어적 표현과 운문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함.

■ <심청전>에 나타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

고전 소설	심청전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생을 다룸.	심청이의 출생-고난 과정-행복한 결말의 구조를 가짐. 다만 심청이가 죽음 이후 부활한다는 점에서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내용으로 끝남.	심청이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고, 아버지를 위해 죽음까지 선택함. 그러나 이후 연꽃으로 환생하여 황후가 되고, 아버지와 재회한 후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내용으로 행복하게 끝남.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됨.	용궁에 간 심청이가 죽은 어머니와 만나는 부분이나 연꽃이 되어 환생하는 부분 등 비현실적 상황이 전개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심 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지간(天倫之間)이라 꿈에 미리 보여 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랑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 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랑가 보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돌려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짓상을 물려 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제,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손(女孫) 심청이는 아비 눈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심 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श्य요.”  
 (나) 심 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참말이냐? 애고 애고, 이게 웬말이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제 차마 할 일이나?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이레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 가면서 동냥질 얻어 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나? 마라 마라, 못 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四窮之首) 된단 말이냐?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양화가 없겠느냐? 눈 먼 놈의 무남독녀 철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네 이놈 상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칠년대환(七年大旱) 가물 적에 사람으로 빌라 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히 하여 상임 뜰에 빌었더니 수천 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제 두고 보오?”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마는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다)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심 소저의 효성과 심 봉사의 일생 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 주면 어떻게 소?”  
 “그 말이 옳소.”  
 하고 쌀 이백 석과 돈 삼백 냇이며, 무명 삼베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 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쌀 이백 석과 돈 삼백 냇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돌려 심 봉사에게 바칩시다. 삼백 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빛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삼베로는 사철 의복 장만해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니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 소저를 가져 할 때,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 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앓는구나. 쌀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나와 의논했다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삼백 석을 이 제라도 다시 내어 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않은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 소저가 여쭙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 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삼백 석을 도로 내어 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한 사람들 하는 짓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낫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結草報恩)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 지라, 하릴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라) 심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 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제,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생기사귀일몽간(生寄死歸一夢間)에  
견정하필루잠잠(牽情何必淚潛潛)이라마는  
세간(世間)에 최유단장처(最有斷腸處)하니  
초록강남인미환(草綠江南人未還)을

이 글 뜻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부인이 재삼 붙들다가 글 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 아니로다.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네 어이 피할소냐. 내 또 한 이 운에 맞추어 글을 지으리라.”

하고 글을 써 주었다.

무단풍우야래혼(無端風雨夜來昏)하니  
취송명화각하문(吹送名花却何門)고  
적거인간천필연(謫居人間天必然)하사  
강피부모단정은(強彼父母斷情恩)을

이 글 뜻은 이러하다.

난데없는 비바람 어둔 밤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 날려서 뉘 집 문에 떨어지나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마)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심 봉사가 붙들고 땡굴며 괴로워하여,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네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끊사오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마는, 액운이 막혀 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의 아버지를 동네 사람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제, 소리 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둬거둬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 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신다. 엎드리며 자빠지며 붙들여 나갈 제 건넌집 바라보며,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뉘와 함께 하려느냐, 작년 오월 단옷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내가 행여 생각하느냐? 아무개네 작은아가, 금년 칠월 칠석 밤에 함께 기원하자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올라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 소리 흐느끼고, 휘날려져 곱던 꽃은 시들어 제빛을 잃은 듯하고, 하늘거리는 버들 가지도 졸 듯이 휘늘어졌고,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 있다.

‘문노라 저 꼬꼬리, 뉘를 이별하였길래 벗을 불러 울어 대고, 뜻밖에 두견이는 피를 내어 우는구나. 달밝은 너른 산을 어디 두고 애끓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네 아무리 가지 위에서 가지 말라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치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오, 한무제 수양 공주 매화 비녀 있건마는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해 단장하리.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랴마는 마지못한 일이라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오.”

**눈촌고등학교 (서울)**

1. 뒷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작중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③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④ 작중에서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과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눈촌고등학교 (서울)**

2. 뒷글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청은 운명론적인 사고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있다.
- ② 뱃사람들은 심청 부녀를 딱하게 여겨 인정을 베풀고 있다.
- ③ 심 봉사는 뱃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장 승상 댁 부인은 심청의 죽음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동네 사람들은 심청의 처지에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눈촌고등학교 (서울)**

3. (나)의 심 봉사의 대사에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대구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으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운문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눈촌고등학교 (서울)**

4. 뒷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한자성어 중 의미하는 바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수지탄(風樹之嘆)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반포지효(反哺之孝) ④ 망운지정(望雲之情)
- ⑤ 혼정신성(昏定晨省)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 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사립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오니 수이 가게 해 주시오.”

하니, ㉕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하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하였다.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앉아 아무썽로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 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세요.”

심 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지간(天倫之間)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랑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 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랑가 보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짓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㉖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제,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손(女孫) 심청이는 아비 눈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올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심 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심 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나, 참말이나? 애고 애고, 이게 웬 말이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나?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제 차마 할 일이나?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이레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 가면서 동냥 짓 얻어 먹어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나? 마라 마라, 못 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가]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四窮之首) 된단 말이나?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양화가 없겠느냐? 눈먼 놈의 무남독녀 철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나?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네 이놈 상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칠년대한(七年大旱) 가물 적에 사람으로 빌라 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히 하여 상림 뜰에 빌었더니 수천 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제 두고 보요?”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마는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심 소저의 효성과 심 봉사의 일생 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 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하고 ㉗쌀 이백 석과 돈 삼백 냥이며, 무명 삼베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 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쌀 이백 석과 돈 삼백 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심 봉사에게 바칩시다. 삼백 석 가운데 이십 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빛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삼베로는 사철 의복 장만해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 소저를 가져 할 때, 무릉촌 장승상 님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 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앓는구나. 쌀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주었지. 쌀 삼백 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 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않은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 소저가 여쭙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 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삼백 석을 도로 내어 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낫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結草報恩)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 지라, 하릴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심 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 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제,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중략>

④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심 봉사가 붙들고 텅굴며 괴로워하여,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네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끊사오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마는, 액운이 막혀 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의 아버지를 동네 사람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제, 소리 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 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신다. 엎드리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갈 제 건넌집 바라보며,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뉘와 함께 하려나

냐, 작년 오월 단옷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네가 행여 생각하느냐? 아무개네 작은아가, 금년 칠월 칠석 밤에 함께 기원하자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⑤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 소리 흐느끼고, 휘늘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 제빛을 잃은 듯하고, ⑥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 듯이 휘늘어졌고,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 있다.

‘문노라 저 피꼬리, 뉘를 이별하였길래 벗을 불러 울어 대고, 뜻밖에 두건이는 피를 내어 우는구나. 달 밝은 너른 산을 어디 두고 애끊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네 아무리 가지 위에서 가지 말라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치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오. 한무제 수양 공주 매화 비녀 있건마는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해 단장하리.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라마는 마지못한 일이라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오.”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지며 강머리에 다다르니,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뱃사람들이 소리를 한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소리를 하며 복을 똥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워 떠나간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현암고등학교 (경기)**

**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설의 바탕이 되는 근원 설화가 있다.
- ② 인신공양 등 당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③ 유교의 덕목인 효(孝)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적층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 ⑤ 사건의 우연적인 전개를 통해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암고등학교 (경기)**

14. (1) ㉔의 ‘버들가지’와 ‘복사꽃’이 위 글에서 하는 기능을 서술하고, (2) <보기>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青) 풍경 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등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들어 올렸다. 어느 땀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愁石)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 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

- 조지훈, <봉황수(鳳凰愁)> -

<조건>

• ‘버들가지’와 ‘복사꽃’의 기능을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지어 서술할 것.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체 줄거리>

황해도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장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늙은 나이에 딸 심청이를 얻었으나 산후 7일 만에 아내가 죽자 온갖 고생을 하며 딸을 기른다. 심청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심봉사는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 이때 자신을 구해 준 용문사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덜컥 시주하겠다고 약속한다. 뒤늦게 이 일을 후회하며 근심하는 아버지를 위해 심청은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사러 다니는 남경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인당수 제물이 되기로 한다. 아버지와 헤어진 뒤 인당수에 이르러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은 용왕에게 구출되어 용궁에서 어머니 곁씨 부인과 재회하고 이후 연꽃 속에 들어가 다시 세상으로 환생한다. 뱃사람들이 그 연꽃을 신기하게 생각해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은 그 속에서 나온 심청이를 아내로 맞이한다.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심 봉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인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부녀는 재회하고, 심 봉사는 눈을 뜬다.

(가)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 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세요.”

심 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지간(天倫之間)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랑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 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랑가 보다.”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짓상을 몰려 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나)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श्य요.”

심 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참말이냐? 애고 애고, 이게 웬 말이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나?”

<중략>

어떤 놈의 팔자길래 (㉔) 된단 말이냐?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양화가 없겠느냐? 눈먼 놈의 무남독녀 철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_백석

###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반성적, 의지적
제재	유랑인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특징	① 편지 형식을 빌려 화자의 근황을 드러냄. ② 평안도 방언과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③ 쉽표(.)의 잦은 활용으로 내재율을 획득함. ④ 산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 ■ 작품의 구성

1~8행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
9~19행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과 한탄
20~23행	운명에 이끌려 온 삶에 대한 인식
24~32행	갈매나무와 같은 굳고 밝은 삶에의 다짐

### ■ 시상의 전환



20행의 '그러나'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임. 20행 이전에서는 화자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지만 20행에서부터는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 평안도 방언 및 향토적 시어

평안도 방언	나춥손, 바우 설
향토적 시어	삿, 털옹배기, 북덕불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예스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토속적인 정감을 주고, 작품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기능을 함. 백석의 고향인 평안도 방언의 구사는 백석 시 전체에 공통되는 특징 중 하나임.

■ ‘갈매나무’의 상징성

모습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서 하얗게 눈을 맞고 있음.
의미	시련 속에서도 갈매나무와 같이 굳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객관적 상관물)

**더 알아보기**

■ 작품 감상하기

이 작품은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 집’이라는 제목의 뜻에 주목해 볼 때, 친구에게(혹은 스스로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고백시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소리 내어 읽노라면 그가 나직이 말을 건네는 듯 ‘가슴이 팍 메어 오고’,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이’곤 한다.

‘나’라는 시어나 ‘-이며’, ‘-아서’, ‘-인데’와 같은 나열 혹은 연결 어미나 ‘-것이였다’라는 종결 어미 등의 반복이 내뿜고 있는 독특한 산문적 리듬이야말로 이 시의 백미이다.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한다’는 직유며,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직설이며,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역설 등 사무치지 않는 구절이 없다.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기까지의 의연한 회복 과정이 유장한 리듬과 어우러져 한 편의 인생 서사를 떠올리게 한다.

-정끝별, 《애송시 100편》에서



**상원고등학교 (경기)**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운율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현대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침표와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 ① 토속적 소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정감을 자아낸다.
- ② 나열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내적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산문적 서술이 두드러지나 침표를 자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 ④ 유사한 구조를 잇달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상황,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를 지칭하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 중심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상원고등학교 (경기)**

4.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와 같은 소재가 나타나는 것은?

<보기>

객관적 상관물은 창작자가 표현하려는 자신의 정서나 감정, 사상 등을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표현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뜻한다. 즉, 개인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객관화하려는 창작 기법이다.

- ①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굶이굽이 퍼리라.
- ②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의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 ③ 생사(生死) 길은 /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④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⑤ 먹구름이 / 물고 온 여름에 / 수많은 이야기들이 /  
들판으로 모여든다. / 할아버지 수염을 달고 / 익어가는  
옥수수가 / 치마폭에 감싸여 /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상원고등학교 (경기)**

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30년대에 이어 1940년대는 일제의 수탈로 농촌의 현실은 피폐해져 갔다. 이로 인해 많은 조선인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조선을 떠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을 떠나는 유민들의 고향 상실과 더불어 민족 해체의 반발 작용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와 토속적 소재를 고수하는 작가들이 나타났다.

- ① 상실의 아픔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현실을 수용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상실의 아픔을 절절하게 그려낸 이면에는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③ 화자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상실하고 떠도는 당시 조선인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 ④ 민족 해체로 인해 고통 받았던 당시 조선인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이 화자의 모습과 정서에 반영되어 있다.
- ⑤ 토속어를 구사한 시를 창작함으로써 민족 해체의 아픔에 잠긴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보라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목수인 박시봉에게 방을 빌려 주고 있다.
- ② ‘눈을 떠서’, ‘천정을 보는’ 행위는 더 큰 세상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 준다.
- ③ ‘재’ 위에 글을 쓰는 행위는 시적 화자가 지난 날을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이다.
- ④ 슬픔과 한탄 등이 ‘양금’ 되어 가는 것은 시적 화자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⑤ 시적 화자가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일이 힘든 것은 일제의 핍박 때문이다.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  
며,  
㉕ 달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짚며 재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앉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을 느끼는 것이었다.  
㉖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  
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  
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  
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㉗ 무릎을 꿇  
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㉘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였다.  
- 백석, '㉙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

**매곡고등학교 (울산)**

7. (가)의 ㉗~㉘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㉗은 화자의 자아성찰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② ㉘을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던 화자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면모를 보인다.
- ③ ㉘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 아픔을 느끼며 좌절하고 마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④ ㉘은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이나 정신을 직접 이입시켜 자신과 그 대상물과의 융화를 꾀하고 있다.
- ⑤ ㉘은 편지형식으로 이는 내용상 화자의 현재 처지와 내면적 독백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장치이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매곡고등학교 (울산)**

8. (1) <보기1>의 밑줄에 해당하는 시어를 (가)에서 모두 찾고, (2) 윗글 (가)와 <보기2>에 사용된 시어의 공통적인 특징과 이러한 시어를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보기1>

1930년대에 이어 1940년대는 일제의 수탈로 농촌의 현실은 피폐해져 갔다. 이러한 농촌을 떠나는 유민들의 고향 상실감과 더불어 민족 해체의 반발 작용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와 토속적 소재를 고수하는 작가들이 나타났다.

<보기2>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쳐들어와  
 오랑개는 가랑잎처럼 굴러 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너는 오랑개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개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개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개꽃.

- 이용악, '오랑개꽃' -

\*도래샘 - 도랑가에 샘이 저절로 솟아 흘러 나가는 샘물, 도래는 '도랑'의 함경도 방언  
 \*오랑개꽃 - 제비꽃  
 \*돌가마 - 돌로 만든 가마  
 \*털메투리 - 털신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잔을 붙이었다.

(나)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앉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까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깨김질하는 것이었다.

(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마)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둠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보라고등학교 (경기)**

9. 윗글을 시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심 내용과 화자의 정서로 정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 내용	화자의 정서
㉠	(가): 화자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음.	반성, 쓸쓸함
㉡	(나) : 급격한 정서 변화를 느끼며 암울한 현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음.	상실감, 반성
㉢	(다) 화자는 답답함을 느끼며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낌.	의연함, 한탄
㉣	(라) 자신을 이끄는 크고 높은 것을 느낌.	의연함, 한탄
㉤	(마)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반성, 성찰

- ① ㉠                      ② ㉡
- ③ ㉢                      ④ ㉣
- ⑤ ㉤

**보라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토적인 소재나 평안도 방언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였다.
- ② 편지글 형식의 산문적 서술을 통해 화자의 근황을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표를 사용해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다.
- ④ 어조, 분위기, 시의 내용이 극적으로 바뀌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 ⑤ 시상이 전환된 후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변화하고 주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라고등학교 (경기)**

11. 윗글의 현실 대응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로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 이상, <거울>
- ②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라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 이용악, <그리움>
- ③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이육사, <광야>
- ④ 산그늘 길게 늘어지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박두진, <도봉>
- ⑤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 그리움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궁그는,  
꽃 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열한 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 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 <삼포 가는 길>\_황석영

###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1970년대 겨울, 삼포로 가는 길
제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
주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들의 애환과 그들 사이의 연대 의식
특징	① 대화와 행동 묘사를 주로 사용하여 사실적이고 극적인 느낌을 줌. ② 길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여로 소설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 함. ③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처리하였음.

### ■ 작품의 구성

발단	뜨내기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치고, 고향인 삼포로 향하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함.
전개	영달과 정 씨는 어느 식당에서, 도망친 작부인 백화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음.
위기	영달과 정 씨는 기차역을 찾아가던 중 우연히 백화를 만나고 세 사람은 동행하게 됨.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폐가에서 백화의 과거 이야기를 들음.
절정	세 사람은 백화의 이야기를 들은 후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느낌.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영달은 거절함.
결말	기차를 기다리던 영달과 정 씨는 대합실에서 만난 노인에게 삼포가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정 씨는 실망함.

### ■ 등장인물

영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판을 전전하는 뜨내기 막노동자</li> <li>· 행동과 말은 거칠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지니고 있음.</li> </ul>
정 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옥 후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인물.</li> <li>· 생각이 깊고 인정이 있음.</li> </ul>
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집에서 도망친 작부</li> <li>· 어린 나이에 술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지만,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함.</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달과 정 씨에게 삼포가 이미 관광지로 개발되어 사라졌음을 알려줌.</li> <li>· 산업화, 도시화가 동반한 변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을 대변함.</li> </ul>

#### 6-(4) 삼포 가는 길

##### ■ '삼포'의 의미

삼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뜨내기로 살아온 정 씨가 생각하는 정신적 안식처이자 그의 고향</li> <li>· 산업화로 인해 본연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잃은 농어촌을 상징함.</li> <li>· 가공의 지명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마음의 고향을 의미함.</li> </ul>
----	---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옛 모습을 잃고 사라져버림.
------------------------------

##### ■ 정 씨의 심리 변화

삼포로 가는 여정 중	고향인 삼포를 생각하며 편안함을 느끼고 기대감을 가짐.
----------------	--------------------------------



노인과의 대화 후	삼포가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 상실에 대한 괴로움과 좌절감을 느낌.
--------------	--

##### ■ 마지막 구절의 의미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서술 대상	인물 → 객관적 대상(기차)
효과	여운 형성
암시하는 내용 (비유적 암시)	산업화로 인해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던 삼포를 상실한 정 씨와 영달이가 목적지가 없는 떠돌이 생활을 계속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함.

**더 알아보기**

■ **여로형 소설로서의 <삼포 가는 길>의 사건 전개**

이 소설은 길을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이 시종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일종의 ‘여로형 소설’이다. 등장인물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여정이 끝날 무렵에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들판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치던 영달이 정 씨를 만나 동행함.
▼	
찬샘	정 씨로부터 삼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영달은 그를 따라가기로 하고, 서울 식당에서 도망친 작부(백화)를 잡아 와 달라는 부탁을 받음.
▼	
송림	영달과 정 씨는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향하던 중 백화를 만나고, 세 사람은 동행이 됨.
▼	
폐가	세 사람은 폐가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 두고,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인간적으로 가까워짐.
▼	
감천 (대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천으로 향하던 중 발목을 뺀 백화를 영달이 업어 주면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낌.</li> <li>• 백화가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영달이 이에 응하지 않음.</li> <li>• 삼포가 변했다는 사실을 노인에게서 전해 들은 정 씨는 실망함.</li> </ul>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 씨는 벗어서 불 가에다 쪼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빼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 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뭇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

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 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요?”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달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찢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

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첻,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촌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 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옥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 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땀예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 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 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려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 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 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 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

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 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상원고등학교 (경기)**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그들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전달 하고 있다.
- ③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등장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 러내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등장인물 간 관계의 변화를 서술 자의 직접진술로 나타내고 있다.

**상원고등학교 (경기)**

**2. 위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① 백화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 ② 정 씨는 영달에게 백화와 함께 정착하기를 권하였다.
- ③ 정 씨는 변해버린 삼포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였 다.
- ④ 백화를 업은 영달은 과거의 여자를 떠올리며 백화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었다.
- ⑤ 영달은 기차역에서 만난 노인의 권유로 일자리를 찾으 러 삼포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상원고등학교 (경기)**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안식처를 잃은 채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을 상징한다.
- ② ㉡ : 백화에 대한 영달의 호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③ ㉢ : 영달이 백화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④ ㉣ :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 ⑤ ㉤ : 영달과 정 씨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상원고등학교 (경기)**

4. ㉠~㉣ 중 <보기>의 [A]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삼포 가는 길'에서 '길'은 만남과 헤어짐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세 인물이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을 느끼는 곳이다. 서먹했던 세 사람의 여정이 진행되면서 [A]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된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영달은 공사판에서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치는 길에 정씨를 만난다. 정씨는 출옥 후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들이 동행하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오히려 백화와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된다. 백화는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연다. 세 사람은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함께 향한다.

(가)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

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①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 씨는 벗어서 불 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나)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빼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 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균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 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다)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달아서 맘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냈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라)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락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첿,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존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가는 판인데…….”

(마)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농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르다구.”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음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압축적 제시를 통해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갈등의 해결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감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정씨가 세상은 힘들고 고단한 곳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백화에 대한 영달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 : 자신을 도와 준 영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 : 영달이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를 바라는 정씨의 조언으로 따스한 인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 유랑 생활을 끝내기 위한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고자 하는 영달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상원고등학교 (경기)**

7. ㉠에 담긴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② 삽자루에 맡긴 내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 샅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 ③ 문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 아는 이 있을까 / 저어 하노니 //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④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발이 한참 같이 / 팽이를 타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 ⑤ 흙에서 나란 내 마음 /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8. <보기>는 윗글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대사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백화의 대사 중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 보는 적도 있어요. 나두 꼭 두 번 고향 근처까지 가 봤던 적이 있어요. 한번은 동네 어른을 먼발치서 봤어요.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예요. 본명은……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아.”

㉡ 정씨와 영달의 대화 중  
 “사람이 많이 사나요, 삼포라는 데는?”  
 “한 열 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요. 비옥한 땅은 남아돌아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구 말이지.”  
 영달이가 얼음 위로 미끄럼을 지치면서 말했다.  
 “야아, 그럼, 거기 가서 아주 말뚝을 박구 살아 버렸으면 좋겠네.”  
 “조오치. 하지만 댁은 안 될걸.”  
 “어째서요.”  
 “타관 사람이니까.”

- ① <보기>의 ㉠와 (나)를 통해 백화와 정씨는 각기 전라선과 호남선 쪽에 마음의 정착인 고향이 있다는 점에서 영달과는 다른 처지임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의 ㉠와 (다)를 통해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본명을 정씨와 영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세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의 ㉠와 (다)를 통해 아름다운 삼포를 자신의 고향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정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의 ㉠와 (라)를 통해 세상은 일이 년 안으로 빨리 변해가지만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삼포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씨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와 (마)를 통해 고향 상실로 인해 절망한 정씨와 달리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영달의 모습에서 계층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9.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의 의도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축적되어 온 경제개발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이다. 산업화는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농어촌의 해체와 그에 따른 농어민의 고향 상실, 도시 빈민층의 형성 등 부정적 결과도 적지 않았다. 그 밖에도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 환경 문제, 농촌 공동체의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 삶을 다루는 한편,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다.

- ① 인간이 하늘을 잇어가고 있다는 노인의 말을 통해 근대화 시대의 개발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그려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어.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내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빈민층의 삶을 그려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어.
- ③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동행하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사회 속,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어.
- ④ 정씨가 그려왔던 고향의 모습과 노인이 전해 준 삼포의 모습 간 괴리를 통해 1970년대 산업화 시대, 인구의 도시 집중 문제를 그려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어.
- ⑤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에 기차가 달리는 장면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 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그려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어.

**인덕원고등학교 (경기)**

10.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주요 소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툇눈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즐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툇툇눈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짝짝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뻘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① 윗글의 '눈'과 <보기>의 '흰 보라, 수수꽃'을 통해 두 작품 모두 겨울을 배경으로 설정해 인물들의 힘겨운 삶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윗글의 '삼포'와 <보기>의 '설원'은 각기 정씨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현실에서 도피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어.
- ③ 윗글의 '대합실'과 <보기>의 '대합실'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거쳐 가는 장소로서 서민들의 고단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 ④ 윗글의 '삼립빵, 달걀'과 <보기>의 '한 줌의 툇툇눈'은 이를 건네는 주체가 주변인에게 전하는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 ⑤ 윗글의 '담배'와 <보기>의 '기침, 담배'는 힘겨운 현실에 지쳐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소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한다.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에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함께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난다. 백화는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연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빼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 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벼운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편에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중략>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요?”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앓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근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 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찢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 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중략>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 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 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뭇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

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뭤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A]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가는 길' -

**매곡고등학교 (울산)**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갈 곳이 없는 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은 뜨내기로 살아온 정씨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산업화로 본연의 안락함을 잃어버린 농어촌을 상징한다.
- ③ ㉢은 백화에 대한 영달의 호감의 표현으로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물질을 중시하는 백화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
- ④ ㉣은 도시에서 상처받은 백화가 인간다운 정을 느낀 정씨와 영달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해버린 고향을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노인의 말을 통해 변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이 함께 드러난다.

**매곡고등학교 (울산)**

12. 세 인물이 처한 상황과 아래 시적 화자의 처지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오동  
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  
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버선이  
여.
- ②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우리가 저와 같아서/강변에 나  
가 샅을 씻으며/거기 슬픔도 피다 버린다./일이 끝나  
저물어/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쭈그려 앉아 담배  
나 피우고/나는 돌아갈 뿐이다./삽자루에 맡긴 한 생  
애가/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구나./
- ③ 한 잔의 술을 마시고/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木馬)를 타고 떠난 숙녀(淑女)의 옷자락을 이야  
기한다./목마(木馬)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  
다./상심(傷心)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딪힌다.
- ④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  
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異國)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식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  
름을 불러봅니다.//
- ⑤ 훨훨털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  
래도 좋아라.//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  
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해  
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  
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리 보  
리라.//

**매곡고등학교 (울산)**

13. 작가가 [A]와 같이 마무리한 이유를 작품의 주제와 관  
련하여 서술하십시오.

<p>&lt;조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 여운, 고향, 민중, 산업화'를 반드시 넣어서 작성할 것.</li> <li>• '~다.'의 형태로 서술할 것.</li> </ul>
--

**5-(2) 우리말의 문장 표현**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니다 → 3만원입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ㄴ-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④ 46.① 47.② 48.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② 60.⑤

**5-(3)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

1.⑤ 2.④ 3.⑤ 4.① 5.③ 6.② 7.(1)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친밀감이 증대될 수 있다. (2)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 막을 수 있다. 8.② 9.④ 10.① 11.③ 12.⑤ 13.④ 14.② 15.선생님, 책이 찢어져서 붙이려고 하는데 혹시 유리 테이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16.㉠-이번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에 모여서 과제를 같이 하자. :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년 정말 글씨를 잘 쓰는구나. :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오늘 영희

는 아침에 지각을 했어. :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17.①

**6-(1) 옛 노래 세 편 감상하기**

1.⑤ 2.② 3.⑤ 4.④ 5.③ 6.A: 한 가지 B: 이른 바람 7.진눈깨비 8.② 9.③ 10.④ 11.④ 12.⑤ 13.④ 14.① 15.① 16.② 17.④ 18.① 19.④ 20.② 21.④ 22.② 23.② 24.② 25.③ 26.불교적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죽음 뒤에 다시 대상과 재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27.④ 28.⑤ 29.③ 30.④ 31.① 32.② 33.㉠ 이른 바람 ㉡ 떨어질 앞 ㉢ 한 가지 ㉣ 누이의 요절 ㉤ 죽은 누이 ㉥ 같은 부모 34.① 35.① 36.② 37.①② 38.④ 39.㉠ 베고 ㉡ 넣고 ㉢ 펼 ㉣ 입을 그리워 하는 40.④ 41.③ 42.② 43.④ 44.② 45.⑤ 46.(1) 수양대군과 그 세력을 의미한다 (2) 수양대군이 주류인 현실을 뜻한다 (3) 수양대군의 세력에 저항하여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47.④ 48.㉠ 개 ㉡ 임과의 만남을 방해 ㉢ 잠을 방해하지만 입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함 49.⑤ 50.③ 51.② 52.④ 53.③ 54.⑤ 55.③ 56.⑤ 57.① 58.② 59. (1) ㉠ 죽은 누이 ㉡ 누이의 요절 ㉢ 같은 부모 (2)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 의식 60.③ 61.② 62.⑤ 63.① 64.② 65.① 66.② 67.⑤ 68.③ 69.(가)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을 지니고 한자어를 주로 썼지만, (다)는 중장의 길이가 다소 길고 순우리말을 주로 썼다.

**6-(2) 심청전**

1.③ 2.④ 3.① 4.② 5.⑤ 6.그날 7.난데 없는 비바람 8.편집자적 논평,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9.⑤ 10.③ 11.④ 12.④ 13.② 14.(1) 심청이의 슬픔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다. (2) 봉황새 15.④ 16.① 17.④ 18.③ 19.③ 20.③ 21.② 22.③ 23.③ 24.③ 25.⑤ 26.⑤ 27.⑤ 28.⑤ 29.③ 30.① 31.③ 32.⑤ 33.④ 34.② 35.㉠감정 ㉡이입 ㉢청산, 강물, 꽃, 버들가지, 복사꽃, 꿩꼬리, 두견이 36.③ 37.③ 38.② 39.① 40.⑤ 41.④ 42.⑤ 43.심봉사가 눈을 뜨고 심청과 다시 재회하는 내용에서 고전소설의 특징인 선한 주인공이 행복에 이르는 권선징악을 확인할 수 있다. 44.④

**6-(3)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1.③ 2.③ 3.① 4.② 5.① 6.② 7.⑤ 8. (1) 샷, 딜옹배기, 북덕불, 나죽손, 바우 섯 (2) 토속적인 정감을 준다, 모국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 9. ⑤ 10.④ 11.③ 12.(1) 객관적 상관물 (2) '갈매나무'는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으로 화자로 하여금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하는 존재이다. 13.② 14.㉠: 먼 산 뒷옆에 바우 섯에 따로 외로이 서서 눈을 맞춤 ㉡: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 15.④ 16.㉠<보기1>: 객관적 상관물, <보기2>: 감정어입 ㉡(가)의 '갈매나무'는 갈매나무에 화자의 의지를 투영하여 드러낸 것으로 보아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17.② 18. ④ 19.⑤ 20.⑤ 21.③ 22.④ 23.① 24.① 25.⑤ 26.객관적 상관물, 화자는 외로움과 추위를 견디는 모습의 ㉠'갈매나무'처럼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6-(4) 삼포 가는 길**

1.④ 2.⑤ 3.① 4.⑤ 5.③ 6.⑤ 7.② 8.⑤ 9.④ 10.② 11.③ 12.② 13.1970년대 산업화에 따라 고향을 잃은 민중의 고달픈 운명을 여운을 남기며 암시하고 있다. 14.③ 15.③ 16.② 17.③ 18.② 19.③ 20.㉠ 비유적 ㉡ 고달픈 운명이 계속될 것 21.① 22.④ 23.⑤ 24.③ 25.① 26.③ 27.② 28.금상첨화 29.변해버린 삼포는 산업화로 인해 농어촌이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음을 말해준다. 작가는 변화된 삼포를 통해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30.㉠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이 붕괴하면서 고향을 잃고 이곳저곳 떠도는 하층민이다. ㉡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31.③ 32.④ 33.⑤

**7-(1) 로봇 시대, 인간의 일**

1.③ 2.④ 3.⑤ 4.② 5.유연성, 창의성 6.④ 7.② 8.② 9.④ 10.② 11.④ 12.⑤ 13.⑤ 14.② 15.⑤ 16.③ 17.④ 18.② 19.④

**7-(2)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1.④ 2.①

**8-(1)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1.① 2.⑤ 3.④ 4.다람쥐를 노리는 다른 동물들이 많다. 5.② 6.③ 7.② 8.⑤ 9.④ 10.⑤ 11.수다람쥐에게

야생 다람쥐의 습성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12.① 13.② 14.㉠어머니는 신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했다. ㉡어미 다람쥐의 죽음이 신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고양이가 새끼 다람쥐를 기르는 것을 보고 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5.⑤ 16.④ 17.③ 18.④ 19.① 20.② 21.⑤ 22. ② 23.⑤ 24.④ 25.④ 26.(1)어머니, 나(어머니의 둘째 아들) (2)야생 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귀여워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 주어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27.③ 28.⑤ 29.어머니는 인간 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려고 한다. 길고양이도 야생 동물이므로 인간적 시선으로 먹이를 주고 길들이다 보면 야생 본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9-(1) 국어의 어제와 오늘**

1.⑤ 2.④ 3.① 4.⑤ 5.㉠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 -, |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③ 12.⑤ 13.② 14.③ 15.⑤ 16.'爲왕하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야'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東國語'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흙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초, 슷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③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② 23.③ 24.③ 25.③ 26.② 27.㉠, ㉡, ㉢, ㉣, ㉤, ㉥ 28.③ 29.④ 30. ③ 31.⑤ 32.①③ 33.① 34.⑤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ㅕ, ㅗ, ㅛ'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36.⑤ 37.④ 38.② 39.③ 40.① 41.④ 42.④ 43.⑤